隔世之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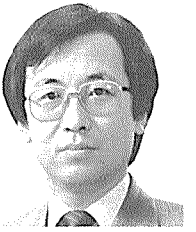
個人用 컴퓨터의 元年으로 일컬어지는 '83年부터 4年, 國內에서 PC가 生産된 '81年부터 6年이 지난 지금은 初期와 너무나 많은 差異이 있다.

初期의 PC가 8비트로 이루어진 탓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의 不足과 컴퓨터에 대한 認識不足으로 國內에서는 PC의 使用이 벽에 부딪쳐 社會的인 物議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몇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우리나라는 世界의 PC生産國으로 발돋움 하였으며, 또한 머지않아 32비트 PC 生産으로 美國 및 日本과 경쟁을 하기에 이르렀다.

國內에서도 PC의 使用이 16비트 PC의 出現과 함께 많아져서, 지금은 웬만한 사무실에서는 PC의 프린터 각종 보고서를 出力하고 있는 소음을 듣게 되었으며 또한 이 소음이 낯설지 않게 되었다.

初期에는 大部分의 情報産業人이 PC를 어린이들의 장난감으로 밖에 생각치 않았으나, 지금은 그들 스스로가 즐겨 使用하며 새로운 應用分野를 開拓하고 있는것과, PC의 地位가 向上된 점이다. 불과 1~2年前만 하더라도 使用中인 PC의 故障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요즘은 PC의 1, 2時間 Down은 會社의 日常 業務를 마비시키는 結果를 가져오는 重要한 事務機器로 格上되어 가고 있다.



김영식
(주)삼보컴퓨터 상무이사

國內에 컴퓨터가 처음 導入되었던 20年前의 컴퓨터보다 더 빠르고, 큰 용량을 갖고 있는 PC가 一般 事務室의 책상위에서 우리 머리로 開發한 우수한 소프트웨어와 함께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最大 文明의 利器인 PC는 우리 生活에 넓게 확산, 活用되고 있으나, 日本의 경우 年間 100萬台이상의 PC가 보급되고 있으나, 우리는 一部層에서만 使用하고 있다.

몇年사이의 成果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의 몇年을 더 重要시 하여, 情報産業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의 힘을 합해서 國民 모두가 情報化 社會에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引導하여야 겠다.